

지역 매아리

생태하천복원사업 '결실'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 집중

부안군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업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한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과 부안쌀 천년의 숨겨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다위 푸드플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가공, 유통·소비, 폐기·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다.

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부안먹거리종합타운은 기획생산시스템 구축과 공공급식 확대, 관내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부안쌀 천년의 숨겨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RF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숨겨의 재배관리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가격을 통일하고 중저가와 고급 프리미엄급 쌀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안형 푸드플랜을 제대로 정착시켜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지역활력화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독거노인가구 노후 보일러 교체

고창군 무장면행정복지센터(면장 황한규)가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동절기 대비 노후 보일러 교체를 진행했다.

무장면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과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을 통해 보일러 수리·교체, 도배·장판, 상수도급수공사(배지원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1가구를 지원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향상에 앞장섰다.

보일러가 교체 된 어르신 가정은 "추운 날을 보내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 황한규 무장면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눔과 봉사로 촘촘한 복지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신운천, 환경부 2019년 우수기관 표창 전복 첫 우수하천 영예·수생태계 높이 평가

부안 신운천 생태하천이 환경부에서 주최한 2019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하천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우수하천 선정으로 신운천은 전북에서는 첫 번째 우수하천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공모전은 시·도 추천과 유역(지방)환경청 1차 평가를 거쳐 지난 11일 학계·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복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부안군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복지방환경청 및 전북도와 사업선정부터 사업추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운천의 콘크리트 형태의 인공수로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수변정화습지 조성 및 수질정화시설 가동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대폭 향상됐다.

정읍 상수도 관리 시스템 전국 '최우수'

올해 일반 수도사업 운영 평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유수율 개선 노력 등에서 '긍정적'

정읍시가 환경부 주관 2019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시의 상수도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전국에서 최우수로 손꼽혀 인정받은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노력·운영인력 전문성·정수시설 운영과 관리·유수율 개선 정도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을 평가했다.

결과로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에 정읍시의 2개 시군, 우수상에 대전광역시 외 3개 시군·발전상에는 부안군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정읍시는 유수율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한 점과 상수

부안 '무지개꽃터널' 점등식

부안군은 최근 부안읍 선운리 지방정원 일원에 조성한 무지개꽃터널의 점등식을 개최하였다. 무지개꽃터널은 무지개색의 LED조명이 설치된 구조물과 동나무가 어우러져 터널형으로 설치되었다.

질정화시설 가동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대폭 향상됐다. 이로 인해 부안읍 저지대 침수예방 효과와 산책로가 정비됨에 따라 부안읍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또 지난 2018년 12월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자연형 수질정화시설(수생식물 여과사 모래, 자갈) 가동으로 수질은 2011년 BOD 8.4mg/L(나쁨, V등급)에서 2019년 현재 1.5mg/L(좋음, Ib등급)로 개선됐다.

종·횡적 생태계 단절구간 개선과 식재면적을 크게 확대(약 4배) 함으로써 자정능력 갖춘 하천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무했던 어류의 경우 치리, 송사리, 붕어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게 됐다.

특히 신운천은 생태계 복원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수달(멸종위기 야생

생물 I급)과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인 삿갓 등이 서식하는 하천이 됐다.

군은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팀을 구성했으며 신운천 생태하천 우측에 자연생태계복원 자연마당(2.5ha)이 오는 12월 완공되고 좌측에 수생식물을 테마로 한 지방정원(10ha)이 오는 2020년 12월 완공되면 지역주민과 협치체계를 구성하고 생태계 교란종 퇴치작업 등 환경정화활동과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홍보 등을 운영해 사후관리에 주민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권인혁 부안군수는 "환경부로부터 신운천의 뛰어난 아름다움과 생태복원 효과를 입증 받아 신운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 주민이 가꾸는 하천으로 평소 주민들의 하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가 환경부 주관 '2019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 요금 현실화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제공을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과 상수도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과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결실을 맺었다"며 "스마트 지방 상수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방문의 해를 알리는 문구를 새긴 중앙고속버스가 최근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달리는 고속버스 래핑광고 '정감여행'

정읍방문의해 홍보 위해...이용객 호기심 자극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알리는 문구를 새긴 중앙고속버스가 최근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차량에는 '일상에 지친 당신의 힐링이 되는 정감(井感) 정읍에 가면 감동(感動)이 있다.' 여행, 정읍도 새겨져 있어 호기심을 자극했다.

광주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사인을 촬영, 제보했다는 정읍시민 김모씨는 "행정에서 정읍을 알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 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광주를 출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중앙고속버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여 간의 일정으로 중앙고속(trailling advertising)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전, 동서울대교, 인천부산 등 국내 주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한다.

시는 전례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인문학적 자산을 토대로 정읍을 국내 관광 선도시로 발전시키고 관광역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읍방문의 해로 운영 중이다.

첫해인 올해는 방문의 해 선포식을 비롯해 정읍민의 콘텐츠 발굴과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시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해인 내년에는 올해 추진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숙박 등의 요식업체 친절마인드 함양에 나서는 등 정읍방문의 해 성공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관광 도시 정읍을 꼭 넓게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친절 가득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행정력 집중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업인 식품기업체, 각종 단체 등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장의 기반을 찾아내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총 사업비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그간 농촌개발은 비슷한 유형의 토목건축사업에 치중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

다. 이에 고창군은 다양한 민간주체(액션그룹)와 지역 핵심리더(코디이터)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업준비 준비에 노력해 왔다.

특히 ▲농업경쟁력강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 공간 구축 ▲고창군 식품산업 명품브랜드화 라는 3가지 목표도 설정했다. 여기에 '농식품 융복합 신산업화 플랫폼(식품 가공센터 등) 구축' 등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창업 생태계 구축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꿈이 갈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0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 | 750ml 1ea/12%

GIFT SET 4.0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 375ml 5ea/13%

GIFT SET 6.0 | 500ml 1쌍2ea/12%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